

순정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마태 14, 19).

연중 제18주일

제1독서: 이사 55, 1-3
제2독서: 로마 8, 35, 37-39
복음: 마태 14, 13-21

강론

오늘도 기적은 계속된다

권이복신부 / 홍보국장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의 하느님- 인간을 축은히 여기시어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느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 계심을...”

모 본당에서의 일이다.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다. 신자 중 70% 이상이 셋방살이였고 가난한 도시 빈민이 모여 사는 곳에 사제관도 성당도 갖추어지지 않는 본당의 첫신부로 발령을 받았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 많은 일 중 가장 먼저 할 일은 본당으로써의 조직과 성전을 신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생각이지 하느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으로 보아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에 앞서 하느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곳에 본당이 세워진다면 합은 하느님이 그 지역에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상징일진데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회가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하느님의 교회가 아닌 다른 신, 다른 것의 교회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모습을 그 지역사회에 똑바로 알릴 수 있을까? 사실 이는 명명백백한 일이었다. 하느님의 모습에 대한 여러 견해 중 가장 확실한 모습은 ‘고통받는 인간을 축은하게 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느님’이기 때문이다(마태 14, 16참조). 따라서 그 지역의 ‘축은한 사람을 도와주는 교회’ 모습이라면 곧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임에 틀림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집이 없고 배고파 축은한 사람들, 병들고 못배워 축은한 사람들을 위한 만남을 갖기로 하였다. 일요일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제도적인 교회의 운영을 위한 헌금을 하고 수요일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헌금하기 위해 모였다. 역시 하느님을 위하고 제도화된 교회를 위해 모이는 사람은 많았어도 실제 가난한 이웃을 위해 모이는 사람은 생각처럼 많지 않았다. 더욱이 이날 모이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모이는 그 만남은 눈시

울을 붉히게 하는 아름다움이었다. 지극히 적은 돈이 모였다. 주당 4만원 5만원, 그보다 더 작은 때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쓰고 써도 그 몫의 돈은 항상 남아 있는 것이다. 때론 천만원이 넘는 심장판막수술을 해주었는데, 그래도 돈은 항상 남아 있는 것이다. ‘쓰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끼고 안 쓰려 해본 기억은 없다. 어떻게 그 적은 헌금은 언제나 남아 있었고, 놀라운 일을 해내었다. 이러한 체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의 의미를 알아듣게 한다. 그렇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안되는 것이 있을까 보나! 하느님의 일이었기에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듯이 우리의 일이 하느님의 일을 하느님스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분명 신기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비록 어리석고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느님은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일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 알게 된 하느님의 모습에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은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다. 두고두고 더욱 깊은 즐거움으로 영글어 간다. 하느님과 나를 굳건히 맺어주는 사슬이 된다.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지혜의 샘이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명확히 가르쳐주는 지침이 된다. 이에 4~5년이 지난 오늘도 난 이렇게 증언한다. ‘난 기적을 보았노라’고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의 하느님-인간을 축은히 여기시어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느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 계심을 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나만의 기적일 것이다. 어떠한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여명



데레사씨!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우리 아파트 옆집에서는 오늘도 남학생이 물놀이를 갔다가 익사한 참변을 겪고 온 집안이 났고 있습니다. 더위 속에 죽음을 묵상하는 일도 우리 삶의 일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 레지오 모임 때 나주 성모님을 뵈러 가자고 했었죠? 그러기 전에 우선 비디오로 피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자 했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가 담긴 작은 책자는 우리가 다 가져왔지요.

그때 우리는 성모님 뜻대로 기도를 많이 바치고 희생도 많았어 바치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올 여름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성지순례를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찾아볼 성지는 다 보았기 때문 외국의 성지-일본, 동남아, 유럽과 이스라엘-차레인가 봅니다.

어떤 학교에 교사들의 자가용 승용차가 비교적 많았는데, 이날 학부모 몇 분이 학교 방문을 위해서 교문을 들어서다가 “이 학교는 공부만 안 가르치고 자가용만 굴리는갑네!”

더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모님 기적이거나 성지순례를 너무 좋아하면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않고 저 것만 하는가!” 하는 편견들을 수도 있을가 싶어 염려가 됩니다.

데레사 씨! 저는 얼마 전에 간단한 사실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서에 대해 좀 생각하다가, 성서 속에는 감정이나 그 흥분상태 관련된 사항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성경 읽을 기록한 사도행전 부분도 전혀 흥분한 분위기가 아님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참되게 전해주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저는 신앙은 확실하 혼의 영역이라는 누군가의 지적이 잘 이해했습니다.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방울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어린아이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선물이고, 신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선물이라면 왜 우리는 신앙을 여타의 기적이거나 다른 나라 성지에까지 확인해야 마를 놓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바깥으로만 맴돌고 우리 자신의 안쪽을 버려 있을 때 우리 사회는 우리의 신앙을 백안시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종교가 대단히 구체적인 사회적 가르침이면서도 세상 더 나은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은 신앙인이 일차적 책임을 저 합니다.

신앙인의 새로운 임무와 책임, 그러나 아주 오래된 소임 ‘빛과 소금’이 되는 일,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자각하는 일- 기적은 이미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오늘 저를 붙들습니다



기적은 하느님을 믿는 신앙과 지혜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할 것 없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느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1 고린 1, 22 - 25)



무엇을 기적 (奇蹟) 이라 하는가?

기적에 관한 소문들

근래 '기적'에 대한 풍문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모님상과 관계된 많은 기적의 소문이 파다하다. 몇 년전 일본 어느 성모상 눈물의 기적과 피눈물을 흘리는 나주 성모상에 관한 얘기가 요란하게 퍼져 다니니 이젠 가까운 이웃 본당인 장수 변암공소의 성모 좌우로 흔들리고, 눈을 감고 뺏다는 소문이 온 교구에 신심이 약한 많은 신도들은 현혹시키고 있다. 이에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기적이란 무엇인가?'를 살피므로 '기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데 도움을 주자 한다.

무엇을 기적이라 하는가?

현대인들은 무엇을 기적이라 하는가? 연구 단체에서 20명의 교사들에게 '기적이란 무슨 것인가?'라는 설문을 보냈다. 응답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15명
-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2명
- 이치 않은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2명
- 신의 특별한 개입으로 자연법칙을 초월한 사건.....1명

정경은 무엇을 기적이라 부르는가? 알폰스바이저 분도출판 (1987. P. 12)

현대인들은 과학적으로 합리와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이상한 일, 신기한 일'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공을 갖고 있음을 대변해준다. 1987년 8월 생활성사 설문조사에서도 기적이란 '인간의 과학적 논리적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논리 이상의 것'이라는 응답을 볼 수 있었다(생활성서 1987. 8. P.

성서는 무엇을 기적이라 하는가?

구약: 고대와 중세의 사람들의 기적에 대한 개념은 날 현대인들의 개념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들은 움켜쥔 자연법칙에 대한 이해가 적었기에 자연법칙을 알지 못하는 신기한 일이나 이상한 일이나 아니냐고 오히려 기적을 판가름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기함과 합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사건들로 드러나는 '신령함'에 큰 비중을 두었다. 그들은 악한 영(靈)과 선한 영이 항상 세상의 일에 간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인 존재들의 힘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며 그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구약성서 역시 한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약성서만이 가지고 독특한 점이 있다. 이스라엘 주변의 신화들은 우주 안 여러 신들이 있으며 이 신들마저도 자연현상의 일만들어진 존재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신들이 일에 개입하므로 여러 가지 이적(異蹟)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만은 세상의 조물주는 유일하며 그 창조주에 의해 모든 것이 지배되고 발전하며 살고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 '기적'은 바로 이 창조주 야훼 하느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한다. 또한 이 하느님의 계시와 섭리를 깨닫게 하는 모든 현상들을 '기적' 또는 '표징', '놀라운 일' 등의 말로 표현하고 있으며 마술적 요인을 철저 배제하므로 모든 것이 하느님의 능력의 표시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안에는 '억눌리고 힘없는 자들의 보호자이시며 해방자이신 하느님'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갖고 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그 사건이 놀랍고 신기해서 기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야훼의 현존과 구원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었기에 기적인 것이다.

② 신약: 신약성서 안에는 여러 형태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다. 병의 치유와 죽은 자의 소생에 관한 기록, 포도주와 빵의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물위를 걷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하는 등의 이른바 '자연기적', 예수의 잉태, 탄생, 세례 거룩한 변모, 십자가상의 죽음, 부활, 승천과 연관된 소위 동반기적(同伴奇蹟), 특히 눈에 띄는 구마기적 등이 성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예수의 기적들은 모두 일관성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루가 11, 20)는 표징이요 증거인 것이다. 하느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시작하였음을 나타내주는 표징이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 다른 마술사들과 명확히 다른 점이였다. 즉, 신약성서에서의 기적은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위에 명백히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 친히 행동하신다'라는 결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개관에 따라 '성경은 무엇을 기적이라 말하는가?'에 대해 알폰스 바이저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기적이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느님의 구원행위의 표징으로 이해하는 괄목할만한 사건들이다."

3. 기적에 관한 현대인들과 성서와의 인식차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기적에 대한 개념과 고대인이나 성서 기자들의 기적에 대한 개념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 현대인들은 어떤 사건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인가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성서기자의 관심은 그 사건이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능력을 나타내주느냐에 관심이 있었을 뿐, 그것이 자연법이나 논리와 합리를 얼마나 뛰어넘느냐엔 관심이 없었다. 기적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한 것은 놀랍고 신기한 일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우리를 고통으로 부터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능력과 은총을 보았기 때문이다. 성서의 모든 기적은 우리 역시 다른 이의 괴로움에 얼마나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다른 이의 괴로움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 주는지 살아야만 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 또 그렇게 살라고 신의 권위로 촉구하고 있다.

III. 참다운 기적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있고 심지어 기적을 찾아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기도 한다. 왜? 무엇 때문인가! 이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다른 표현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소위 기적이라 이야기 되어 지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은 그 자체로 신기한 일일 뿐 결코 기적은 아니다. 신기한 일과 기적과는 엄격히 구분 되어져야 한다. 참다운 기적은 하느님의 능력을 입어 나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일어난다. (편집부)

숲 정 이 산책



전주교구의 민주화

진로유동 참스
(수제전문브랜디)
특약점

을·鮮京커텐, 스완카페트
일키브라이트·혼수예품

사비커텐
정 걸 (알베르도)
김 강 (엘리사벳)
상동가구점김 (에이스침대안)
☎82-2226.86-5611

사 원 모 집

당사는 호남 유일의 카세트 테이프 생산 수출업체로서 성실하고 유능한 새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생산직 여사원 〇〇명
2. 구비서류: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
3. 자격: 중졸이상 학력자로 신체건강한여성 (가정주부도 환영)
4. 기간: 1990년 7월 30일
5. 기타: 봉급차우행, 식사제공, 기숙사유

(주)쏘릭스 총무부
☎4-7411

도시 감각의 패션 구두
브 랑 누 아
김 순 희 (마키엘라)
전주지점 (오거리)
코이백화점 개장
☎6-5043

푸마반도스포츠상설할인매장

단체복 주문 환영
신발30%, 의류40~50%할인

대표 국 길 주 (솔비야)
코오롱쇼핑 내 1층
☎85-7743/87-2495

한글, 한문 기초부터 개별지도
(주부반 특별편성)
명 료 서 예 학 원
원장 신 기 정 (요셉)
효자성당 옆
☎82-6492

웨 도 화 실
입시반, 취미반모집
이 동 아 (벨리네타)
전북대 앞
☎75-4189

정동기획

김정렬 (베네딕도)
이강례 (올리나나)
TEL. 72-3211
FAX. 291-8990

우리·도자기 특수 열처리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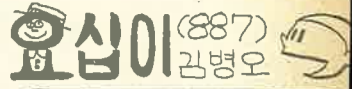
- 각종성화(그림접시, 커피잔, 불갑, 분통 등)
- 각심신단체(레지오, 꾸리아 등) 및 가정제대용 성화전통백자화병
- 분당행사기념품, 결혼, 회갑, 답례품 및 관촉물 일체

임정골한의원

원 장 임 의 성 (스테파노)
간호사 정 성 옥 (테레시)
☎3-2403. 445-2403

척추교정 및 디스크상담
(군산) 국도극장 뒤

기쁨과 감사의 삶 해바라기 할머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1테살 5,16-18).

신앙인이란면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기도와 기쁨, 감사의 단어는 믿는 이들에게는 아주 가까운 벗이다. 이 벗들과 매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할머니가 계시다.

덕진본당의 강금자(소화테레사·73세) 할머니시다. 할아버지께서는 6·25때 젊은 나이로 전사하셨고, 전매청을 다니면서 살림을 꾸리고 어린 5남매를 키우셨다.

테레사 할머니께서 영세받으신 것은 79년 4월 부활절이었다. 막내 아들이 가톨릭 서적을 읽고 나서 천주교에 입교하자고 하여 교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원래는 절에 다니셨으나 성당에 가고 싶었기에 금방 시작할 수 있었다.



그후 온 가족이 하느님 자녀가 되었다.

영세받은 이듬해인 80년에 안양에서 성령세미나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전교은사를 받게 되었다. 그후로부터 전교에 온 열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1년에 수십 명을 입교시키는데, 가장 많은 때는 52명을 입교시킨 때도 있었다. 올해도 20명을 목표로 전교하는데 현재 벌써 15명을 입교시켰다. 또한 가난한 이들, 노인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다. 택시값을 아껴서 모았다가 국수를 사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서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그

리고 신자 할머니들을 모아 성모회를, 신자 할아버지를 모아 요셉회를 조직하여 대화와 만남으로 노년을 신앙 안에서 평화롭고 즐겁게 지내도록 인도해주고 있다. 냉담자들도 찾아가서 기도하고 성서, 교리를 함께 읽으면서 공부시킬 때 그들의 마음도 감화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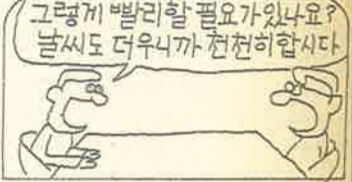


강금자(소화테레사)

어 하느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된다. 환자들도 방문하여 대세를 시켜 임종을 잘하도록 해준다. 그중에는 대세받고 병이 치유되어 교회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외에도 여러 면으로 봉사활동을 하시고, 현재 레지오 단장을 맡고 계시다.

그러나 테레사 할머니께서도 건강하신 편은 아니다. 항상 하느님께 신뢰하고 기쁘게 봉사하면서 살다보니 갖고 있는 병도 낫게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실 수 있다고 한다.

말씀하시는 테레사 할머니의 모습에서 내면 깊은 기쁨이 배어나와 하느님께서 함께 계심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 해바라기 같은 테레사 할머니, 하느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삶을 삶으로 살아가시는 기쁨·감사의 참미로 인해 황혼의 아름다움이 더욱 찬란하다.



둔율동 성당 - 개항 후 배편으로 오가던 신부들의 기착지 역할

開港 前의 群山은 불과 20~30호가 살던 한적한 어촌이었으나 박해를 받던 교우들은 드리내봉고 내외의 선박이 드나들던 이곳에 정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항 후 배편으로 오가던 신부들의 기착지 역할을 함으로써 차츰 천주교의 싹을 틔울 수 있었다.

群山교회의 첫출발은 1925년 금마리아 여사의 주선으로 시내 榮洞 22번지에 공소를 열고 나바위 신부를 청해 판공성사를 보게 된 때부터이다.

금여사는 공소를 열기 전부터 교우를 찾는데 낙이었다. 하루는 우연히 오기장수 부인이 목에 흰 옷을 맨 것을 보고 그가 사는 晚洞里 토점을 찾아 여러 교우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 같이 합심해서 영동에 공소를 차린 것이다.

금여사는 당시 프로테스탄트였던 동생 踏鍊 씨를 설득, 개종케 하여 둘이 힘을 모아 포교에 전념한다. 또 姜요한(允欽)이란 이



가 이사오고 계속해서 서울, 평양 등지에서 이사와 교세를 넓히게 된다.

임바오로, 韓民洙, 蔡鏞洙, 梁聖俊(분도) 등이며, 여자들은 劉마리아, 朴수산나 등이 큰 힘을 기울였다.

大邱교구 주교는 1929년 5월 群山본당 설치 발령을 내리고 초대담임에 金베드로(榮九) 신부를 임명했다.

이곳의 교우들은 열과 성을 쏟아 1930년 屯栗洞의 群山보통학교 옆에 있는 大成院을 3천5백원에 매입, 성당으로 개수하고 부속건물을 사제관과 기타 필요한 시설로 사용토록 하여 31년 1월 18일 金 신부를 맞이했다.

그때 시내의 교우는 1백 50명, 沃溝 일대의 교우는 4백명에 불

과했다. 그때부터 교우들도 늘기 시작했고 2대 담임 임바오로 신부(1938년)는 목조건물이나마 웅장하게 신축하고 群山지역에 튼튼한 뿌리를 박게 됐다.

“한적한 어촌이었으나 차츰 천주교의 싹을 틔워나갔다.”



교구소식

- ※ 판문점 통일염원미사 : 8월16일 오후2시 연락처-평화동 본당
- 1. M.B.W. 기초코스 : 8월 6일(월)-8일(수) 천호피정의 집 회비30,000원 오전9시 단체버스로 가톨릭센터 출발
- 2. 재무평의회 : 8월9일(목) 오후2시
- 3. 교구 사진동우회 : 8월 12일 오전9시 가톨릭센터(사진에 관심 있는 신자 참석바람)
- 4. 사회복지회 월례미사 : 8월6일 오전10시30분 장소-사회복지회관
- 5. 예비신학생 모임 : 8월12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대상-중·고·대·일반 준비물-미사준비·필기도구
- 6. 전주교구 종교음악 연구회(가칭)창립총회
일시 : 1990. 8. 11(토) 오후 4:00, 장소 : 교구합창단 연습실(센터 4층), 대상 : 각 본당 성가대 임원
- 7. 테클라 성소자 모임 : 오늘 오후2시 성바로 서원 2층 252-3398(성바로말수도회)
- 8. 가리따스수녀회 성소자 모임 : 8월 12일 오전9시30분 덕진 수녀원 72-1222
- 9. 성령선교수녀회 성소자 모임 : 8월 12일 오후2시 (02)764-4750
- ※ 축! 영명 : 8일(성도미니코) 강인찬 신부님 10일(성라우렌시오) 박진량, 범선배, 전대복, 박기준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모르는게 약(藥) -

약에 대한 맹목적 신뢰와 남용은 오히려 몸을 해칩니다. 약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약의 치료와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오용한 약이 독이 되는 수가 있으니 몸에 독한 약보다는 자연건강법,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지키도록 합시다.

현대영어과외교습

국교부·중학부·일반부
어머니 한글, 숫자 해독반모집

상담문의 86-7666
위치: 전주 시립도서관 골목
최영숙(마리아)

유아용품전문·출산준비물·양육일제

이승환(베니)
윤미숙(OLIVIA)
전주교구영성센터 1층
☎ 6-1155

사원모집

당사는 통신기기를 원원부품생산
수출업체로서 근면하고 창의력을 겸
비한 참신한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00명
자 격 : 학력제한 없음
만 16세이상 31세미만여성
남·여·초보자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부씩
모집기간 : 8월5일부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알·에프·하이텍
전주시 금암 1동 1556-3
☎ 5-3697

삼성전자 역전대리점

(공무원 연금가 판매)
대표 김태권(스테파노)
윤춘자(마리아)
☎ 72-4663

인후동 인후2단지APT와 역전로터리 중간

맥코이이온정수기

국내외 최고판매의 보건사회부허가210호
반교, 깨끗한 생명의 물!!
주 모리아 크리스탈 정수사업본부
매서동 주(스테파노)
경원동 전북대 치과대학 사거리
☎ (0652) 86-1077, 82-8038
교우상담원영, 남대시원계속모집, 수질검사 무료

유럽성지순례출발

9월12일(15박16일)
접수마감일 : 1990. 8. 20

군·옥지구 각본당 신부님께
문의 바랍니다.

(주)한길관광해외여행사
대표이사 박노석(요한)
이춘숙(구버로디)

대표전화 42-1147

성공적인 삶의 비결

- 일시 : 8월 6일 월, 9일 목
오후 2시와 7시 2회
- 장소 : 전주 가톨릭센터 대강당
- 주최 : 한국정신과학연구소
042-255-6833
- 연사 : 金重培 博士 말시아노
- 참가비 : 천원(필기도구 지참 요)

효과 : 스트레스, 불안, 초조, 강박
소법, 수면조절법, 문제해결을 위한
꿈조절법, 무용 및 권투등 제어법,
정신력을 통한 질병조절법, 기억법,
집중력, 창조 및 창의력 증강법, 습관
조절법, 체중조절법, 목표성취법, 신앙
심화, 타인론트럼법, 호감받기법,
상대선동법, 상대교정법, 가정운행
하게 하는 테크닉, 성격향상법 등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꿈란불치병상담소

중풍·관절염·디스크
신경통·알레르기성피부

박장춘(블라치도)·임혜선(에스텔)
자연식품 및 송죽알로에
인후 2단지 금성교회 앞
☎(사) 251-0848, (자) 222-3271

전화·국변경·안내

백운전자

방송시설, 비디오촬영 전문

백정수(리노)
이준남(테레사)
전주시민회국 앞
☎ 252-0231

주단·침구·모시·삼베
계끼한복·각종이불맞춤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통 남분원
☎ 84-7294

사제의 소리

머무시는 교우분에게

김병엽 신부 / 팔마천주교회

경애하는 원평 이세시리아 씨!
 문고리가 고장난 공동변소에
 아 용변을 보며 문의 각목을 꼭
 고 있다기 기운 센 사람이 잡
 당겨 놓치고서 두 눈이 마주쳐
 찔 줄 몰라 문을 후다닥 닫고...
 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지막 고별미사를 할 때, 몇
 이고 목이 메일 때면 경문이
 추어질까봐 변소의 사건을 생
 한답니다. 그것도 안되면 문명
 처럼 손만 합장한 채 눈을 멍
 히 미사책에 머문 채, 이십전
 이라고 교우들과 훌쩍거리게
 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 사
 들은 인사이드가 되면 가족과
 함께 떠나지요. 그러나 신부들은
 이우나 고우나 교우들이 정든 애
 물건지입니다. 정든 벽돌 한장,
 돌 한 포기, 손때 묻은 것들에게
 정을 그대로 두고 떠나기란 작은
 신명이랍니다. 가끔 신문 기사를
 보면 사랑하던 애인에게 배신당
 하고 새끼줄로 목을 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난놈이라 혀를 차겠
 지만 그 남자애겐 세상의 어떤
 여자들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
 문이 아닐런지요?
 수류성당에서 전통성당으로 부
 임되었던 첫날밤 일입니다. 이
 본당은 나의 친정 본당이어서 저
 려미사가 끝나고 서로 안부를 묻
 다 보니 거의 열두시가 다 되었
 습니다. 묵주알을 굴려도, 백에서
 영까지 세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

니다. 몇 시인지 오목대를 지나
 가는 기차소리가 멀리 사라졌습
 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자야 할
 텐데... 그렇지만 정신은 말뚱말
 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장날 시장 갔다가 차비를 아껴
 아이들 과자를 사다준 어머니의
 모정들, 감을 김제로 팔러 가다가
 차장과 시비가 벌어져 발로 채인
 감바구니가 엮어져 울상을 짓던
 교우의 모습, 가뭇이 들면 웃는
 아랫눈 물싸움 때문에 마음이 상
 하여 영성체를 안하던 교우들,
 세상에서 제일 먹고 싶은 것이
 라면이라던 교리반 아이들, 금방
 난 달걀이 식을까봐 두 손으로
 감싸 들고 와서 식기 전에 먹으
 라던 교우들의 모습 등등.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데 미사시작 30
 분 전 종소리가 울리는 것이었습
 니다.
 우리 신부끼리의 불문율에, 있
 던 본당에는 오년 안에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
 런게 있느냐고 하시겠지만요, 사
 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비
 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 신
 부님은 이랬는데 하는 자리에 끼
 어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말은 눈덩이가 되어 신부님들 사
 이가 어떻게 되겠는지 상상해 보
 세요. 이런 이유로 전 본당 교우
 들이 찾아오면 냉대하던 냉대로
 대합니다. 떠난 지 얼마 안되어
 그 본당의 낙성식이나 성당개난
 등, 공식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삼베바지 방구 사라지듯 사라지
 는' 것입니다. 정들었던 교우들은
 술도 담고, 담도 잡았는데 하면서
 "신부들은 참 독하고만 독해"라며
 복쟁이 알보다 더 독한 사람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죠.
 사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
 답니다. 한참 정열이 왕성할 때
 연인이 아니면서도 같이 있는 자
 체로 기분 좋고 행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신학생 시절 이유없이
 선남선녀들과 함께 있으면 '신학
 생이 마리아를 좋아하나봐? 열
 열하다면 그려' 하게 되면 신부
 되기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
 령기 때문에 방학을 하면 여자를
 멀리하는 경향이 생기고, 신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교우
 들에게 한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식물, 동
 물, 사람 모두가 암수컷이 있지만
 천주교 신부만은 유독 교회법으로
 결혼해선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
 니다. 때문에 성질상 이상한 사
 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부부는
 서로 단점을 보완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
 으로 처참한 생각이 들 때도 있
 습니다. 의지적으로 서약하였지
 만 하느님께만이 아니라 인간 세
 계에도 무한에 가까운 아름다운
 신비를 느낍니다. 내 자식이 미운
 짓을 하여 매를 때리고 돌아서면
 미운 생각이 없어진다며요? 더
 구나 땅자의 비유를 읽을 때면
 자식에 대한 사랑도 모르면서 하

알고봅시다

중고생 영화 'THE KID' (어린이) 상영

일시: 8월 13일 오후4시
 장소: 가톨릭센터 회의실
 회비: 500원(선착순 80명)
 찰리와 만난 버려진 아이 존,
 "이 아이를 사랑해주세요"라는
 쪽지를 읽고 키우기로 결심, 커
 퍼포트는 쫓병, 기저귀는 셔츠로
 키웠는데... 귀여운 존의 앙징스
 러움과 유명한 배우가 되어 나타
 난 엄마와의 상봉-떠들이 찰리가
 헤어지는 아픔을 어떻게 견디어
 버릴!

엄마들을 위한 영화 '바티칸의 휴일' 상영

일시: 8월 13일(월) 오전10시
 장소: 가톨릭센터 회의실 (시원
 해요) 회비: 천원(선착순 80명)
 대상: 엄마(아빠들도 오세요.)
 교황청을 몰래 빠져나온 교황
 성하 '툼' 자신의 마을에 신부님
 이 없다고 하소연하러 온 농아소
 녀를 찾아 떠나셨는데... 바티칸
 은 발카 뒤집히고 톱 교황은 마을
 사람들과의 마찰과, 문제 '소년
 줄리아노를 설득, 기적의 풍차를
 돌린다. 농아소녀의 엄마와 뜻뜻
 한 사랑도 경험하시는데...

느님 자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전 망령되어 다시
 태어나면 장가를 갈거라고 그래서
 아들, 딸을 통해 진실되게 하느님
 사랑을 깨닫고 싶은 생각도 해본
 답니다. 이렇게 진실된 사랑을
 주고받고 할 때 정상인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참사람이
 되겠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
 송합니다만 전 이상한 사람이 되
 지 않으려고 새, 화초, 개를 키
 우며 기쁨도 슬픔도 맛보지만 인
 간의진실된 사랑을 맛보기 전엔
 정상인이 되는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우들께 인정머리
 없는 신부라는 말을 듣게 된다고
 생각하며 슬픔에 잠기기도 한답
 니다.
 경애하는 이세시리아 씨, 이때
 리의 '길'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이 있습니까? 잠빠노의 떠남을
 슬퍼하는 젤소미아에게 수녀들은
 3개월마다의 인사이드로 풀 한
 포기 벽돌 한장에게도 하느님께
 향한 사랑이 같아봐 떠난다며 위
 로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정들었
 던 신부님을 보내시며 쓰신 글을
 숲정에서 읽었습니다. 가신 컷
 은 오옥십리 거리, 그리움이 커
 손에 일이 안 잡히던 신부가 보
 심시오. 인사이드된 신부는 시집
 간 딸과 같아, 두 번 세 번 찾아
 가면 전임 교우들만 좋아한다는
 속닥거림에 신부의 생활은 어려
 움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진정
 신부님을 생각하시는 교우시라면
 조석으로 기도해 드리는 길이 좋
 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전임 교우에게 속은 아파도, 냉
 대하는 것같이 대할 것입니다.

남전지구 본당소식

- * 노승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부실 82-9661 보좌신부 김 회 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승 남
 1. 견진교리: 6~9일 낮반 10시30분 학생우후5시 저녁반8시. 2. 공소견진교리: 6~10일 저녁8시 왕정리공소 장사 김영태부제님
 3. 공소견진교백성사: 10일 오전10시 공소학생화회예절 10일 오후 4시. 4. 세례지침교리: 6일~10일 저녁8시(강석자, 베타에서 제외됨). 5. 세례식: 11일 저녁7시(복선미사없음) 축하식은 12일 공식미사후.
 5. 사목회상임위원회: 9일 저녁8시(정진우 씨). 7. 모임: 울드레아-오늘저녁8시 성심회, 성가대원례회-7일 어머니미사 후 성령기도회, 9일 저녁미사 후 베소라 매주월요일 10시30분.
 3. 36차 남성꾸르실로: 9일~12일 김귀연(야고보) 김진섭(베드로) 태국섭(베드로). 9. 금주 청소년: 중노2가17번 남노1번 차주청소-남노2,3번.
 10. 원죄없으신 모후400차 은퇴신부님(5분)을 모심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796,550원 □ 교무금: 485,000원
- * 목자** 사제관 86-3453 사부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1.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대견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청년회 하기수련회: 6~8일 장소-부주 자연학습원. 4. 울드레아: 7일 저녁미사 후. 5. 화요성서교리: 7일 저녁미사 후. 6. 자모회: 안나회-9일 오전10시. 7. 여성분과회: 11일 오전10시. 8. 꾸리아: 12일 오후2시. 9. 청년회: 12일 저녁미사 후. 10. 주일학교 방학: 8월 한달. 9월1일 개학 어린이미사 방학동안 없음. 부모님과 같이 미사참례. 11. 여름성경학교 찬조금: 최장기 20,000원, 익병 10,000원, 집삼심 5,000원, 누계 1,059,000원 감사합니다. 12. 은인을 구합니다: 환풍기(주일 학교용).
 금주 전례: 해설-정승훈 ①유홍열 ②유규희 봉헌-유홍열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최유남 ①오병록 ②김옥희 봉헌-오병록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57,480원 □ 교무금: 1,017,100원
-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부실 82-5434 사목회장 김 중 석
 1. 사목회: 11일 저녁미사 후.
 2.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15일, 오전10:30분 미사후 경축행사가 있음.
 3. 청년회, 성가정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성결원기: 미가서, 나훔서 전체.
 5. 금주 전례: 해설-이승복 독서①양주태 ②이훈봉 봉헌-양주태, 이승복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송봉덕 독서①유순천 ②장영미 봉헌-박귀철, 유순천 씨 부부
 6. 감사: 중·고 수련회, 여름성경학교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 지난주 봉헌금: 209,500원 □ 교무금: 96,000원
-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부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오늘은 연중제18주일!
 1. 회의: ①자모회-8월7일(화) 오전10시30분 ②반장회-다음주 일 공식미사 후 ③프란치스코 3회-다음주일 오후2시.

- 2. 알릴: ①예비자 종합교리-8월5일, 12일, 13일, 14일 ②영세석-8월15일 오전10시 ③꾸르실료수장-권희조(벤자민), 김현필(베드로) 형제 8월9일(목)~8월12일,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④예비자를 인도합시다-교리시간 매주일 공식미사후(성인반), 매주일 오전9시(학생반) ⑤사부장 하기휴가-8월6일(월)~8월10일(금).
- 3. 감사: 중고산간학교와 어린이성경학교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 지난주 봉헌금: 531,120원 □ 교무금: 364,000원
- *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부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초막공동체,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중등부수련대회를 위해 협조와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M.B.W 피정: 8월6일~8일 장소-천호회정의 집 회비-15,000원(본인부담).
 2. 유아세례: 국민학생 2학년이하의 어린이 8월10일까지 신청바람.
 3. 구역장·반장 모임: 공식미사 후.
 4. 청소년 봉사: 서안산동 2가 서편.
-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부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 중 용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성전보수현금 바랄. 1. 재속클라리형제회: 오늘 오후1시30분.
 2. 구역봉사자 모임: 오늘 저녁7시30분. * 반기도회-7일~10일(꾸르실로참석). 3. 돈보스코회: 8일(수) 저녁7시30분. 4. 청년연합회 단합대회: 11일~12일. *출발시간-11일 오전9시, 오후3시.
 5. 판문점 통일염원미사 참석희망자 사무실에 접수바람. * 8월16일(목).
 6. 8월은 꾸리아 주관 '예비자 인도의 달'입니다. * 입교식-9월2
 7. 본당사무용 컴퓨터를 기증하실 분을 구합니다. <400만원상당>.
 8. 매주 수요일 저녁: 나라를 위한 기도미사
 * 금주보수비 현금액: 50,000원
 * 현재모금총액: 150,084,788원
 * 금주보수비 신일액: 없음
 * 현재신일총액: 219,531,399원 □ 지난주 봉헌금: 1,330,330원
-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부실 83-8245 주임신부 박 병 준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환
 ※ 통일염원 판문점미사: 16일(목) 오전6시30분출발. 참가비-1인 7,000원. * 성모승천대축일(15일)을 맞이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꽃병헌을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 어린이주일학교 방학: 25일까지. 개학시-9월1일(어린이 미사는 계속있음). * 중·고성교리: 7일(화)~9일(목), 오후4시~6시까지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 청년회계수련회: 10일~11일까지 장소-미정 * 축! 남성제36차꾸르실로참가: 9일~12일 참가자-오수환(부추오). 1.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2. 금주 전례: 정순태 복사-장상근, 차동주 봉헌-김승관 부부
 차주 전례: 박연희 복사-이봉연, 박병환 봉헌-장상근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33,410원 □ 교무금: 457,500원
 □ 감사헌금: 윤분도(만원), 권성자(삼만원)
- * 화산동** 사제관 87-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부실 87-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7일(화) 오전10시.
 3. 금주 전례: 해설-한병장 독서-유길수, 이음배
 차주 전례: 해설-장병순 독서-박영근 부부
- * 효자동** 본당 83-3841 사부실 84-0915 주임신부 유 중 환
 보좌 81-0050 수녀원 84-4804 보좌신부 김 태 환
 사목회장 황 수 석
 1. 축! 영세(성모승천반): 11일(토) 오후7시. * 피정: 5일(일) 오전9시~17시. 침중교리-6일(월)~10일(금) 오후7시30분 * 단체가입식-금, 오후7:30.
 2. 모임 안나①구역봉사자 모임-수 10:30(교육관) ②안나회-오늘 11시미사 후 ③울드레아-다음주 11시미사 후(시선대). 3. 감사: 초·중·고 성경학교 및 산간학교 및 불빛이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교사들, 모니카회, 대회사회, 후원신자, 사목회등).
 4.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안나: 주일미사 시간과 동일. 5. 성당청소 봉사: 서부기성A, 효자1단지A, 광진목화A, 봉헌 구역. 6. 성당 공사를 위한 2차헌금-294,440원 협조에 감사.
 □ 지난주 봉헌금: 750,510원 □ 교무금: 999,000원
-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부실 221-3711 주임신부 박 황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1. 사목회: 저녁미사 후. 2. 판문점 통일염원미사: 8월16일 신청바람.
 3. 반석회, 요셉회: 공식미사 후. 4. 애령회 단합대회: 7(화) 9:00출발 고산전. 5. 성모회, 자모회: 10(금) 어머니 미사후.
 6. 10일 오후2:00 북매공소미사 오후8:30 이서공소.
 7. 어린이성경학교에 협조하신 여러분께 감사.
 8. 제의방 냉장고 기증 감사합니다.
 차주 모임: 울드레아.
 금주 전례: 해설-장진상 독서①차진석 ②박순영 기도①순수상 ②라화성
 차주 전례: 김인규 독서①김성희 ②박상순 기도①김방관 ②황갑덕
 □ 지난주 봉헌금: 475,510원 □ 2차헌금: 252,800원
 □ 교무금: 680,000원